

油 価 小 考

지난 4월 19일 国内石油類價格이 上向調整 되었다. 이를 발표하는 政府当局이나, 이 발표를 듣는 국민이나 모두 憂鬱하였으나 73년의 제 1차 석유위기 이래 여러번 되풀이되어온 일기에 이제는 거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하기가 해마다 오르는 物価와 이를 뒤쫓는 精製費, 그리고 무엇보다도 予告도 原則도 없이 인상되는 原油價格 때문에 国内의 기름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요즘에는 常識化된 感마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石油란 「油原價格의 진폭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怪物」이니까 「미움기는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石油를 혐오만 하거나 올라가는 기름값에 諦念만 할 것인지... 이번 油價引上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정부는 최근 석유류제품가격을 평균 15% 인상조정했다. 그 幅과 時期가 精製業者와 소비자에게 다같이 滿足과 共感을 주었는지를 論함은 扃置하고, 그 발표내용을 볼 때, 이번 조정에 있어서는 石油와 石油産業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의 원칙적이고 正面的인 해결을 시도한 노력이 歴歷히 엿보인다. 그 몇가지를 들어 보면, 精製費의 正常反映, 利潤概念의 도입, 국제시장가격에의 접근시도, 소비자보호와 石油化学工業 등 国内산업에의 배려 등이 그러하며, 특히 石油類價格政策의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가 돋보인다.

石油産業도 原油를 원료로 하여 석유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製造業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石油産業은 수요공급에 입각하여 適正利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영위되는 單純製造業의 一面을 지니고 있는 반면, 国内 총에너지의 60%를 공급하며, 石油化学, 肥料工業 등

주요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國家超基幹産業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취급하는 원료나 제품은 모두 恒時 국제경쟁의 대상이 되는 비교적 단순한 국제상품이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石油製品價格을 책정할 때는 소비자 보호와 국가산업정책의 수행이라는 大命題下에서, 그러나 石油産業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基幹産業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그런 觀點에서 石油類價格推移를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石油産業은 이러한 목적 달성과 사명완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만일 단순히 높은 가격을 책정받아 安逸하게 원료를 求得하여, 안일하게 공장을 돌려, 안일하게 얻은 시장에 판매하고, 안일하게 소위「適正利潤」을 추구한다면, 소비자의 指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石油産業은 피땀흘리는 노력을 기울여 다음의 몇가지를 힘차게 추진하여 정부와 국민의 협조와 호응을 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주어진 條件下에서 가장 값싸게 原油를 도입하도록 한다.

둘째, 소비자의 에너지費用을 절감하도록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도와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해외원유개발을 비롯하여 편리하고 값싼 代贖에너지 개발에 참여한다.

넷째, 石油가 價格과 量面에서, 다른 에너지에 대해 從的인 입장에 설지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基幹에너지일 것임을 자부하고 항시 충분한 비축하고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咸秉昭·大韓石油協會副會長〉